

■ 영상 택배 시즌 3 - 스리랑카 한 달 살이 - 세 번째 이야기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이야기 3부

이번 영상은 지난 주에 이어서 여행 사진과 함께 스리랑카 여행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11세기까지 스리랑카 신할라 왕조의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와 중세시대 수도였던 폴론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리랑카의 불교사원과 왕궁터 등의 사진과 설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질 연재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택배의 유튜브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KhUg55Hx5g>)

■ 연구원 회원 소식

박해숙 회원

2006년 연구원 창립회원으로 지금까지 연구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 전북지부(모약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인 박해숙 회원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조사원 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대면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조사원 선정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조사사업을 통해 191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생산된 문서·서적·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조사·수집해 향후 근대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해숙 회원께서는 우리 연구원 창립부터 함께 활동해 온 것이 이번 사업의 조사원으로 선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연구원과 함께 인생 이모작을 즐기시는 박해숙 회원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조한승 회원

해마다 연구원 회원 캠프에 따끈따끈한 유기농 국산콩두부와 시원한 콩물을 나눠주시는 조한승 회원 소식입니다. 지난 해 9월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3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것에 이어 또 다른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조한승 회원이 대표로 운영중인 비봉우리콩두부영농조합법인이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2021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잠재력이 우수산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해 강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조한승 회원의 영농조합은 3년간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선도하는 조한승의 회원의 건투를 빕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얼굴을 되찾은 묘비 - 1980. 5. 24

1980년, 한반도 남쪽의 도시 광주는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고립무원의 섬이 되고 말았다. 계엄령으로 대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휴교되었던 광주에서 11살 소년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을 놓았다.

1969년생이니 만일 그날 계엄군의 총탄을 만나지 않고 살아 있으면 이제 중년이 되었을 그는 당시 광주 효덕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전재수라는 소년이었다. 집 근처 야산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도로에 계엄군 행렬이 지나가자 손을 흔들었다. 계엄군은 광주비행장으로 이동하던 11공수여단(여단장 최웅)이었다. 그들은 소년들을 향해 갑자기 총을 난사했다.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던 전재수는 벗겨진 고무신을 주우러가다 가슴과 다리 등을 관통당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11공수여단장의 상급자는 정호용 육군특전사령관, 그의 상급자는 전두환이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실시된 '광주사태'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재수에게 소총을 난사하고 광주에서 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없다. 지휘체계와 명령에 따른 복종은 있었으되 책임자는 없는 형국이다. 군대를 다녀온 이들은 모두 이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다. 군대라는 조직은 하다 못해 겨울에 눈을 치우러 나갈 때도 빗자루를 들 것인지 가래를 들 것인지 시키는 이와 작업에 투입되는 이가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 신군부가 가한 악영향 중의 하나는 그 주변과 시대의 사람들을 망쳐 놓았다는 데 있다. 그들만 아니었으면 멀쩡하게 살았을 사람들을 보상도 없는 역사의 희생자로 만들어 망각의 늪에 던져 버린 것이다.

열한 살 소년이 총을 잡았을 리는 만무했다. 그는 그날 다만 학교가 문을 닫아 친구들과 동산에서 놀던 중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부검 당시 그는 열 발이 넘는 총탄이 박힌 채였다. 충격으로 그의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밀어가다 1984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전재수의 묘비에는 40년간 얼굴이 없었다. '광주사태'의 폭도로 몰릴 때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로 복원된 뒤에도 여전히 그의 묘비에는 다른 이의 묘비에 사진이 있는 것과 달리 무궁화가 붙어있을 뿐이었다. 사진을 구하기 위해 그의 동창생과 친구들에게 수십년간 수소문하며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사진은 등장하지 않았다. 망월동 구묘역에서 518국립묘지로 옮긴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유명봉안소에도 묘비에도 전재수는 사진 없이 '무궁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지 41년만인 올 5월 5일에서야 그의 사진이 묘비에 앉았다. 전재수씨의 큰 형 전재룡씨가 20여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큼지막한 사진 뒤에 끼워져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1978년 초등학교 입학 기념 사진에서 아버지, 고모들과 함께 있는 가족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어린이 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열 한 살의 나이에 고무신을 주우러갔다가 총탄에 희생당한 '소년 폭도' 전재수는 비로소 얼굴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소년폭도'로 만든 최고 책임자는 분명함에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